

광주 남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계획심의도 없이 허가 ‘잡음’

개발제한구역 법정 절차 생략한 채 사업 추진 영산강환경청·남구 등 업체 편의적 행정 논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광주시 남구 양과동에 건설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사업허가를 내줘 잡음이 일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가 난 건물이라도, 이와 별개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소각)을 위해선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생략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 규제기관인 영산강환경청과 도시계획 심의권이 있는 광주시, 사업장이 소재한 남구청 등 행정기관이 법적 절차 준수를 요구하기보다 업체 편의적 행정을 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영산강환경청은 지난 1월 16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인 H업체에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를 내줬다. 애초 이 업체는 지난 2009년 7월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 및 인허가 신청’을 냈으나 2014년 9월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불허가’를 통보 받았다. 이후 한 달여가 지나 또다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 올 1월 허가를 얻었다.

문제는 H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특별법)’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않았는데도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내려지면서 비롯됐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영산강환경청은 허가 결정을 하기 전 ‘해당 시설이 관계법령(타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를 묻게 돼 있다.

양과동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H업체 시설의 경우 도시계획 심의 권한이 있는 광주시에 관련법 위반 여부를 문의해야 하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 절차를 생략했다. 다만, 권한이 없는 남구에 관련 질의를 하고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전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은 폐기물시설이 연면적 1500㎡이하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 2009년 8월 개정 이후 ‘연면적에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서는 폐기물시설은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구는 영산강환경청에서 관련법 위반 여부를 물어오자 “해당 건물은 건축법상 적법한 것으로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고,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등 도시계획 관련 법률에도 위반됨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영산강환경청이 관련법 위반 여부를 도시계획심의권을 가진 광주시에 묻지 않고 남구에 질의한 점, 도시계획심의 권한이 없는 남구가 하지않는 답변을 한 점 등이 의혹을 사고 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건축법에 적법하다고 해당 건물(시설)이 도시계획 관련 법상 적법하다고 단정할 순 없다’,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선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규제구역이 좀더 엄격하게 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도시계획과 교수는 “건축법과 도시계획 관련법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법익)가 확연히 다르다. 건축법상 합법이라도 도시계획 관련법상 위배될 수 있다”며 “관련법상 사업 허가를 받은 뒤에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처도록 돼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심의를 받는 게 순리에 맞다”고 말했다.

영산강환경청은 이와 관련, “남구에 도시계획 관련법 등 타법 저촉 여부를 질의한 뒤 ‘이상 없다’는 통보를 받고서 허가를 내줬다”면서도 “논란이 커진다면 관련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당 업체에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성범죄 통계 못준다는 대학들

교육부·박주선의원 자료 요청에 70개교 제출 안해

성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대학들이 캠퍼스 내 성범죄 자료를 공개하는 데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25일 교육부에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범죄 현황’ 자료를 요청한 결과, 4년제 대학 197개의

36% 정도인 70개교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현황 조사는 지난 2월 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6주 동안 진행됐다.

박 의원은 2월 11일 교육부로부터 78개 대학의 통계를 제출받았고 이후 2차 조사를 요청했지만 49개 대학만 자료를 추가로 내놓았다.

127개 대학에서 2010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성범죄는 114건이고 성범죄 교원은 44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40일 넘게 자료제출을 독려했음에도 조사대상 학교의 3분의 1 정도가 대답하지 않아 이번에도 전수조사는 어렵게 됐다.

자료를 내지 않은 70개교에는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이 많고 서울지역 여대의 경우 이화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가 포함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출소 하룻만에... 전자발찌 자르고 도주한 40대 검거

광주보호관찰소는 25일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선도(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선씨는 지난 23

일 새벽 3시15분께 광주시 동구 한 여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함에 버리고 인근 공터에서 전자발찌를 가위로 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씨는 지난 22일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한 뒤, 일정한 주거가 없어 보호

관찰관이 지원한 여관에 있다가 하루 만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0년 3월 영흥읍소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부처명령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다고 보호관찰소에 전했다.

선씨는 야산과 여관 등에서 숨어지내던 중 수사팀이 좁혀오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형기자 golee@



가거도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최승호·백동홍 경감, 박근수 경사, 장용훈 경장의 합동 영결식이 25일 오전 목포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엄수됐다. 영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동료 경찰관이 흐느껴 울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해경 영웅’ 뜻 기리며 ‘눈물의 배웅’

헬기 사고 순직 합동영결식

가거도에 사는 어린이 응급 구조를 위해 출동했다가 순직한 해양 경찰관들의 영결식이 25일 목포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국민안전처장(禱)으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을 찾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을 비롯, 홍익태 해경본부장, 동료 등 800여 명은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영원한 해양경찰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주말부부였던 가장을 잃은 최승호 경감 가족, 아직 어린 자녀가 나란히 영결식장을 지킨 백동홍 경감 가족, 미혼인 까닭에 어머니와 여동생만 남은 박근수 경장 가족, 몸이 불편해 목발에 의지한 채 이들의 장례식장을 찾은 장용훈 경장의 아버지와 가족들은 슬픔으로 오염했다.

특히 갓 돌이 지난 아들과 부인을 남긴 채 먼저 간 장용훈 경장은 지난 23일자로 사망 인정이 되었지만 유일하게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려다가 희생한 이들에게는 육조근정훈장과 1계급 특진이 추

서됐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조사에서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한순간 망설임도 없이 재난현장으로 달려갔던 열정과 사명감, 국민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애국심과 희생정신은 우리의 귀감으로 남을 것”이라며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빛나고 보람 있는 삶이었기에 더 이상 미련은 접어두고 명목(名目)하지 않길 기원한다”고 애도했다.

서해해경본부 항공단 김태일 경위가 동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헬기에 묶인 벨트를 풀고 비행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편안한 곳에서 영면하기를 바란다”고 하자 영결식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해양경찰 의장대의 조총 발사를 마지막으로 운구 차를 따라 늘어난 동료 경찰관들이 마지막 거수경례로 해양경찰 영웅 4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운구 행렬은 고인들이 생전 근무했던 목포공항에서 항공단 동료와 마지막 작별인사를 거친 후 화장 절차를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한편, 서해해경본부는 장의 일정과는 별도로 실종자 장용훈 경장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용인서 교각 상판 붕괴

16명 매몰됐다 구조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 인부 16명이 한때 매몰됐다

25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10여m 높이의 교각 레미콘 타설중 상판이 붕괴, 현장에 있던 인부 16명이 매몰됐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여 사고 1시간여 만에 매몰자 16명을 모두 구조했다.

16명 중 8명은 건강상태가 양호해 현장에 잔류하고 있으며, 나머지 8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연합뉴스

편의점 진열 말다툼끝 한바탕 소란

○~아내와 공동 운영 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편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행.

○~2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51)씨는 지난 24일 밤 8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편의점에서 아내(50)와 물품 진열 방식을 놓고 말다툼 끝에 화가 나 출입문을 잠근 뒤 진열대를 부수는 등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는 것.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는데, 담당 경찰은 “아내와 공동운영하는 가게일지라도 물건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경우 일정부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

김지을기자 khh@kwangju.co.kr

나노바이오연구원 직원

기자재 납품 금품수수 확인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장성 나노바이오연구원의 기자재 납품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수년 간 독점 공급하는 대가 명목으로 금품 등이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 연구원 직원 A(54)씨에 대한 조사 과

정에서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환경 장비 납품 대가 명목으로 받은 금품 규모 외에 추가 관련자 여부를 파악중이다.

경찰은 또 당시 원장으로 있던 이재의 광주시 비서실장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 사실을 광주시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빈(신축 4층건물)
룸12개, 올 대리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물건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용해동 교회앞 금호아파트 사이 대지310평 전주택 2채, 무화과나무있음
매매가 3억 (용 1억 2천)

① 전대정문 1빈코너 룸21개 202개(1층 상가 2개) 월 700만, 매매가 7억 8천	④ 전대정문 2빈 룸11개 4층 주택 월수익 400만, 매매가 6억 5천
② 용봉동 용봉지구 미래도 A 코너 룸 19개 (1층상가, 4층 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대지 105평 월수익 900만, 매매가 11억	⑤ 동신대 후문 2빈 룸 18개(1층 상가) 주인세대 4층, 매매가 10억
③ 동구 대인동 고사원 룸 72개 월수익 1천2백, 매매가 21억	⑥ 생촌동 원룸 1개 (운천역2빈) 매매가 4천5백

(주)대신 062)527-7600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7층건물 (올수리) 월수익 900만 (주인 직접 운영시 월 1,800만 수익 발생) 매매가 13억 (보 1억, 용 6억)
추천물건 동구 충장로 상가 5층 학원건물 동부경찰서 앞
매매가 15억

① 나주시 상영동 상가건물 2층 영강초교앞 1층 62칸, 2층 42칸 월 수익200만, 매매가 2억 9천	③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빌라부지) 도로2차선열 바닷가 5분 무화과 나무 식재됨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매매가 3억 2천
② 서구 상무지구 정연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 2천	④ 수원지구 모이점/1남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 5천, 매매가 3억 5천
⑤ 수원지구 3층 롯데마트 옆 4층중 3층 62평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 5천	⑥ 서구 상무지구 수림6층 15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4천 5백
⑦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1천5백, 매매가 20억	

(주)대신 010-6670-9800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5층 학원)

평수 100평 (전용 80평) 이면도로코너 학원리모델링 함 주차 4대 무료 확보(주위 200대) 중심 상무지구에서 저렴함 보 3천, 월 130만

나주 상가 2층건물 매매

① 영신중, 고교 앞, 영강 초교 앞
② 대덕 APT 유동인구 많음
③ 대지 210평 (1층 62칸)
④ 건물(2층2칸), 학원적합

매매가 2억 8천

010-6670-9800

(주)대신경매 (임차부터 매매 임대까지 원스톱지원 건축 리모델링 개발 무로상담해드림)

근린사실/근린주택 (수익성 상가)

- ① 남구 지석동 (토 105㎡, 건물 88㎡) 감평가 8천1백, 최자가 5천9백 (대촌산업단지 예정)
- ② 북구 게임동 (토 445㎡, 건물 1,558㎡) 감평가 10억9천, 최자가 4억9천 (투자적합)
- ③ 남구 일곡동 (토 9,600㎡, 건물 250㎡) 감평가 41억, 최자가 41억 (배차장, 공영사, 특수)
- ④ 북구 매곡동 (토 1,660㎡, 건물 1,317㎡) 감평가 15억9천, 최자가 15억9천 (스포츠센터)
- ⑤ 동구 충장동 (토 155.4㎡, 건물 628㎡) 감평가 5억9천, 최자가 5억9천 (문화의전당)
- ⑥ 상가건물 2층 → 담양권 금성면 (편선, 4명 시설) 감평가 27억~12억
- ⑦ 상가건물 6층 → 광양시 중동 (중상가도로) 감평가 28억~26억
- ⑧ 상가건물 4층 → 여수시 교동 (사내중상지역) 감평가 13억~10억
- ⑨ 상가건물 3층 → 충주시 성서동 (사내중상지역) 감평가 30억~12억

근린 상가

- ① 순천시 행동 (토 373㎡, 건물 1,304㎡) 감평가 17억, 최자가 12억
- ② 순천시 장천동 (토 423㎡, 건물 1,138㎡) 감평가 10억, 최자가 5억 7천
- ③ 광주 남구 봉선동 (대 38㎡, 건물 61㎡) 감평가 3억9천, 최자가 3억9천
- ④ 광주 서구 금호동 (대 180㎡, 건물 295㎡) 감평가 6억5천, 최자가 3억9천
- ⑤ 광주 남구 봉선동 (대 173㎡, 건물 589㎡) 감평가 9억 4천, 최자가 2억 1천
- ⑥ 광주 남구 노대동 (대 703㎡, 건물 279㎡) 감평가 4억9천, 최자가 3억 4천

주요소

- ① 서구 마루동 (토 1,132㎡, 건물 278㎡) 감평가 9억9천, 최자가 6억9천 7백
- ② 남구 인촌동 감평가 7억, 최자가 4억 9천
- ③ 광안구 북동동 감평가 9억 9천, 최자가 8억 8천

토 지

- ① 서구 매월동 (토 1,900㎡) 감평가 3억 5천, 최자가 2억 4천 7백
- ② 남구 봉선동 (토 417㎡) 감평가 1억 9천 5백, 최자가 9천 5백

010-6670-9800 / 062)382-5500

경매학원 (기본+실전)

이제 경매는 대중화시대 (매주 초 개강)
경매교육 (기초부터 ~ 실전개발까지)

- ① 오전반 (화요일) 9시30분 ~ 12시
- ② 오후반 (화요일) 7시 ~ 9시
- ③ 주말반 (특별반) ⇒ 상담가능

엔피엘교육 (부실채권) 2개월 총강

★ 3월 23일(월요일) 첫 개강 ★

- ① 오후 (월요일) 7시 ~ 9시까지
- ② 집중 엔피엘교육 (기분부터 실전까지)

※ 경매 실전 위주반 모집(기본 + 실전) 1년

010-6832-9700
010-2699-5300